

# 안중근 관련 중국 시가 중의 인물 형상 연구\*

최형욱\*\*

## 국문초록

많은 중국인들이 안중근 의사를 제재로 자신의 인식과 감정을 담은 시가를 지었다. 표현기법 면에서 이 시가들은 대부분 고대 중국의 수많은 인물 형상과 전고를 적극 활용했다. 안중근의 형상화에 활용된 인물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刺客’·‘俠士’로 규정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사실 ‘자객’이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치부되는 경향도 있어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한 부류는 ‘英雄’·‘志士’로 규정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오해의 여지가 없는 긍정의 이미지이다.

중국 시가들은 전자의 荊軻와 후자의 張良을 위주로 하고, 양자에 속하는 수많은 인물들, 즉 豫讓·要離·聶政·高漸離·宜僚 등과 先軫·楊儀·唐雎·藺相如·申包胥·董公·魯陽公·文天祥 등을 함께 활용하여 의협·영웅·지사·위인으로 안중근의 긍정적 이미지를 한층 제고시켰다. 중국인들이 자국의 수난기에 국가를 구원할 수 있는 ‘士道’ 즉 강건한 리더십의 전형을 수립하고자 갈망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안중근은 시의적절한 정면교사였다. 忠·義·勇·희생정신·진취성·상무정신 및 강한 의지 등 이상적인 국민성을 고루 갖춘 국가사회 리더의 전형이었다. 때문에 중국에서 의협과 위인으로 표상되었고, 많은 시가로 노래될 수 있었다.

[주제어] 안중근, 중국시, 인물 형상, 자객, 의협, 위인, 리더십, 이토 히로부미

## 목 차

I. 서론	IV. ‘영웅’·‘지사’ 형상으로 ‘위인’ 안중근 애도·찬양
II. 안중근 관련 중국 시가	V, 결론
III. ‘자객’·‘협사’ 형상으로 ‘의협’ 안중근 애도·찬양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220000003537)

\*\*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chw@hanyang.ac.kr

## I. 서 론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중국 하얼빈에서 의거를 일으켰고, 이듬해 3월 26일 30세 나이에 순국했다. 그해 8월 29일 조선은 國恥를 당했다. 당시 중국도 진작부터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에 상처 입고 수모를 겪었다. 반제·애국 및 개혁을 추구하던 중국인들에게 안중근과 조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사유를 하게 하는 화두였다.

자국 땅을 휘젓고 다니던 일제의 수뇌를 처단했으므로 중국인들에게도 당연히 통쾌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 큰 관심 속에서 일제의 무도한 재판 진행과 이에 임하는 안중근의 정정당한 모습 그리고 순국까지 지켜보며 애도와 찬양을 금치 못했다. 중국인들이 지은 안중근 제재 시가의 내용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부분이다. 다만 중국인들은 제삼자의 입장이었고 중화사상의 성향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을 일부 포함하는 미묘한 인식과 감정들도 표출했다.

위와 같은 시가의 '내용'에 대해서는 필자의 이전 논문에서 상세히 논의한 바 있다.<sup>1)</sup> 최초 연구 동기는 근대 중국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詩나 文을 통해 안중근을 찬양하고 논의했음을 알게 된 데서 생겼다. 량치차오(梁啓超)와 그 「가을바람이 등나무를 꺾은 노래(秋風斷藤曲)」가 대표적이다. 1909년 안중근 의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초기에, 량치차오가 이를 제재로 지은 7言 96句의 장편 시가이다. 기본적으로 안중근에 대한 동정과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다. 다만 제삼자이자 개혁가의 입장에서, 일본의 유신을 이끈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선망과 그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도 함께 담아냈다. “가을바람이 등나무(藤)를 꺾다”라는 제목부터 의미심장한 형상화를 보인다. “꽃이나 나무를 꺾다.”라는 표현은 복수의 통쾌함과 더불어 “아쉽다”라는 이중적 느낌을 준다.

량치차오뿐만 아니라 안중근과 동시대에 중국을 이끌었던 많은 지도자들이 안중근을 기리고 관련 인식을 표출했다. 특히 오사운동을 창도하고 중국 공산당을 창당한 천두슈(陳獨秀)의 평가가 인상적이다. “진취적이어서 퇴영적이어서는 안 된다.……나는 청년들이 孔子나 墨자가 되기를 원하지, 巢父나 許由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청년들이 톨스토이나 타고르(R. Tagore, 인도의 은일시인)가 되기보다는 콜럼버스나 안중근이 되기를 원한다.”<sup>2)</sup>라고 했다. 자신의 인생 목표인 ‘청년계몽’의 주요 덕목 중 하나로 ‘진취성’을 내세우고 그 표상으로서 안중근을 꼽았다.<sup>3)</sup> 이밖에 辛亥革命을 일으킨 쑨원(孫文)은 물론 친일 외교를 전개한 바 있는 위안스카이(袁世凱) 같은 지도자들도 안중근을 애도·찬양하는 내용의 시가를 전한다.<sup>4)</sup>

1) 「安重根 義士를 題材로 한 중국 詩歌 연구Ⅰ: 시가 개관 및 애도·찬양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문화연구』 58, 중국문화연구학회, 2022; 「안중근 의사를 제재로 한 중국 시가 연구Ⅱ: 특별한 타자 및 제삼자적 인식과 감정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論集』 137, 중국어문학연구회, 2022.

2) “進取的而非退隱的.……吾願青年之爲孔墨, 而不願其爲巢由; 吾願青年之爲托爾斯泰與達嗎爾(R. Tagore, 印度隱遁詩人), 不若其爲哥倫布與安重根!”(「敬告青年」, 『青年雜誌』 創刊號).

3) 천두슈는 『新青年』을 통해 당시 중국 청년들을 계몽하기 위해 노력했고, 주요 덕목으로서 자주·진보·세계·실리·과학적인 정신과 더불어 진취를 강조했다.

4) 이들 외에도 차이위안페이(蔡元培)·장빙린(章炳麟)·장지에스(蔣介石)·조언라이(周恩來) 등등이 문장 중에 언급하거나 시가를 통해 찬양한 바 있다.

저명인사들뿐만 아니라 당시 일반 중국 시민·군인·학생들도 안중근을 제재로 한 시가를 지어 자신의 사회와 인식을 피력했다. 이때 특히 두드러진 점은 표현기법으로서 고대 중국의 수많은 인물 형상과 관련 전고를 자주 사용한 것이다. 본고는 안중근 제재 중국 시가의 ‘내용’에 대한 연구에 이어서, 주로 ‘인물 형상’에 초점을 맞춰 상세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중국의 안중근 제재 시가 전모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과정에 관해 간략히 언급하자면, 첫째 필자가 지속적으로 수집·정리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安重根’ 및 하얼빈 의거 관련 시가들을 최대한 보완하여 기초자료로 삼는다. 둘째, 이를 정확히 해독하여 텍스트로 삼는다. 셋째, 텍스트들 중의 인물 형상 및 전고에 대해 세밀히 분석한다. 넷째, 안중근에 대한 형상화를 정리하고 그 의미를 도출한다. 다섯째, 안중근 제재 시가들 중의 인물 형상을 통해 중국인들이 결국 무엇을 추구했는지 논의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안중근과 그 의거에 관해 노래한 중국인들의 시가들을 여러 각도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안중근 관련 중국 시가와 관련성이 있는 선행 연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부분적인 연구에 머물고 있다. 필자의 이전 논문과 함께 종합적인 연구에 공헌하고자 한다.

## II. 안중근 관련 중국 시가

중국에서 안중근 관련 언론기사와 문예작품은 주로 ‘① 의거 및 순국시기’, ‘② 오사운동시기’, ‘③ 만주사변 및 항일전쟁시기’ 세 시기에 많이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sup>5)</sup> 필자가 수집한 바에 의하면, 시가의 경우도 비슷하다. 먼저 1909년 의거 이후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다. 의거와 재판·순국의 여운이 아직 남았고, 1919년 오사운동 무렵 반제·애국혁명의 분위기가 강렬했던 점과 관련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후 1920년대에는 자연히 작품수가 줄었다가,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잇달아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며 다시 항일애국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새삼 유용한 제재가 되었다.<sup>6)</sup>

많은 시가들이 신문·잡지에 실렸다. 여러 안중근 전기문에 수록되기도 했다. 일부 개인 시문집에 실리기도 했다. 중복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약 70편의 ‘安重根’ 제재 시가들을 수집했다. 중복되거나 내용상 거의 비슷한 것도 있다. 재중 조선인의 작품이 분명해 보이는 것들도 있다. 정리해서 대략 50 작품을 주요 텍스트로 삼았다. 계속 수집 경로도 더 찾고, 가치 있는 작품들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sup>7)</sup>

정리하고 번역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필자의 이전 논문에서 목록을 제시하고 상세히 논의했으므로 중복을

5) 宋成有, 「中國人士所見安重根義學的視覺和反應」, 『大連近代史研究』 7, 大連市近代史研究所, 2010, 126~149쪽 및 蘇全有, 「安重根在中國的百年記憶評析」, 『河南理工大學學報』, 18: 3, 河南理工大學, 2017, 86~87쪽 참고.

6) 최형욱, 「安重根 義士를 題材로 한 중국 詩歌 연구 I: 시가 개관 및 애도·찬양 내용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188~189쪽 참고.

7) 『晚清期刊全文数据库(1833~1911)』와 『民國時期期刊全文数据库(1911~1949)』에서 대부분의 작품들을 수집했다. 신문·잡지에 실린 작품을 그대로 영인한 것들이다. 또 당시 중국에서 간행된 안중근 전기 중에도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당시 중국에 체류하던 朴殷植의 漢文本 『安重根傳』(1912)나 중국인 鄭沅의 『安重根』(1917), 鄭淸의 『安重根傳』(1918) 등 전기에 다수 題詩들이 첨부되어 있다. 아울러 金柄珉·李存光의 『中國現代文學與韓國資料叢書』(2014) 등 한국 관련 중국 현대문학 자료집 등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피한다. 다만 요약 설명하자면, 시가들의 내용은 주로 안중근에 대한 애도와 찬양이 두드러진다. 또 이로부터 출발하여 피해자 한국에 대해 동정하고 동병상련의 연대의식을 피력하기도 했다. 가해자 일제를 비판하는 내용으로도 발전했다. 한편으로 일부 시가 중에는 조선에 대한 속국인식 등 우월의식을 담아냈다. 이를 바탕으로 나라를 빼앗긴 조선의 열악한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 나아가 중국 개혁의 롤 모델 이토 히로부미를 경모하는 입장에서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생전의 공격을 기리는 내용도 있다. 제국주의의 꺾박을 받으면서도 부국강병의 민족제국주의를 갈망하던 근대 중국인들의 모순적 사유를 드러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회와 인식의 귀결점은 안중근을 정면교사로 삼아 중국인들을 각성시키고, 나아가 조선을 반면교사로 삼아 교훈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안중근이라는 제재를 타자로서 활용했던 주체적으로 소비했던 결국 추구하는 바는 중국의 계몽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안중근’을 다양한 인물 형상으로 비유하여 감동과 계몽의 효과를 제고시키고자 했다.<sup>8)</sup> 초기에 량치차오의 「秋風斷藤曲」부터 특히 형상화를 적극 활용했다.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인식과 감정을 시종일관 인물 형상 및 관련 전고들을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제목은 물론 장편의 시구를 통틀어 안중근이라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은 점부터 인상적이다. ‘가을바람’은 안중근을, 꺾이는 ‘등나무’는 이토 히로부미를 형상화하여 하얼빈의거를 상징하는 것이 명백하지만, 전편에 걸쳐 이름조차 언급함이 없이 안중근과 하얼빈의거 그리고 이토를 연상시킬 수 있게 했다. 이러한 형상화는 다른 작품들에도 다양하게 보인다.

안중근 제재 시가를 발표한 지도자들 가운데 쑨원이나 위안스카이 같은 이들도 중요하지만, 량치차오는 다수 시문에서 안중근을 다루었고, 또 정치는 물론 문학·언론 방면에서의 영향력으로 인해 이후 안중근 제재 시가 창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한다.<sup>9)</sup> 그는 중국 變法維新의 영수로서 복합적인 문제의식에 다양한 인식과 사회를 피력했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중국의 계몽을 추구했다. 특히 안중근을 통해 국적에 상관없이 근대 국가의 ‘국민’이 갖춰야하는 강건한 국민성과 사회지도층의 이상적인 리더십을 적극 선양하고자 한 점이 두드러진다.

### Ⅲ. ‘자객’·‘협사’ 형상으로 ‘의협’ 안중근 애도·찬양

량치차오<sup>10)</sup>의 「秋風斷藤曲」<sup>11)</sup>은 전체적으로 당시의 세계정세와 조선의 긴박한 상황에 관한 깊이 있는

8) 번역한 50작품을 분석하여, 본고 제 3장에서 11작품을 인용·논의했고, 4장에서 15작품을 논의했다. 3장에서 논의한 작품 중 3작품의 다른 부분을 다시 4장에서 논의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총 23작품, 26부분을 필요에 따라 인용하고 논의했다. 이 작품들에 대해서는 해당 대목에서 작자·출처를 밝힌다.

9) 예를 들어 胡蘊山이라는 군인은 1927년에 아예 량치차오의 「秋風斷藤曲」과 똑같은 제목의 시를 지어 안중근을 기린 바 있는데, 유사한 점들도 많이 보인다.

10) 梁啓超(1873~1929), 字 卓如, 號 任公, 筆名 飲冰室主人 등, 廣東 新會人. 본론에서 작품을 논의하는 작자에 대해서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밝힌다.

11) 1910년 2·3월 경 작으로 추정된다. 『飲冰室文集』之四十五(下)에 수록.

인식 그리고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제삼자적 평가 등등을 다양하게 표출했다. 다량의 인물 형상과 전고 사용이 두드러진다. 특히 중후반에 안중근에 대한 형상화를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필자의 이전 논문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간단히 소개하여 서두로 삼고 다른 작품들을 많이 논의하고자 한다.

량치차오는 우선 대표적인 ‘刺客’인 豫讓과 荊軻를 누차 활용했다. 안중근과 달리 비록 거사에는 실패했지만 그 義氣를 높이 평가하는 인물들이다. 戰國時代 晉나라 大夫 智伯의 家臣이었던 豫양의 忠義와 복수는 중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안중근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을 떠올리게 했을 것이다. 豫양은 『史記』·「刺客列傳」에 나오는 자객들 가운데서도 특히 권력자의 사주와 관계없이 忠義와 복수를 실행함으로써 ‘士’의 윤리를 상징하게 된 의협이었다.<sup>12)</sup>

특히 형가는 자객의 대명사이다. 燕 太子 丹이 ‘夫人」 즉 徐夫人의 匕首를 구해서 형가에게 주어 秦王 嬴政 살해를 시도하게 했으나 실패하여 죽임을 당했다. 이를 안중근의 형상으로 세밀히 비유했고, 의거 후 재판 상황까지 이어갔다. 주지하듯 안중근은 旅順 공개재판에서도 조국의 명예를 위해 죽음을 예사로 여기며 자신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의연한 기개를 보였다.<sup>13)</sup> 두 인물이 자연스럽게 겹쳐진다. 단순한 자객의 형상이 아니라 분명 의협의 형상이다. 안중근 제재 시가들은 형가의 형상 중에서도 주로 의로움·당당함·희생 등 긍정적인 이미지와 동정·아쉬움 등 안타까움의 정서를 채택했다.<sup>14)</sup>

비슷한 이미지의 인물 형상으로서 俠士 要離도 중요하게 활용되었다. 요리는 春秋 말기 주군인 閻閭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협사이다. 량치차오는 평소 屍嬰을 본받고자 했지만,<sup>15)</sup> 최고의 忠義와 희생 정신을 실천한 요리도 함께 존경한다는 뜻을 표현했다. 역시 안중근을 중국의 의협 형상으로 비유했던 것이다.

「秋風斷藤曲」과 비슷한 초기 작품으로 보이는 陳嘉會<sup>16)</sup>의 「조선 건아의 노래(朝鮮兒歌)」<sup>17)</sup>도 같은 맥락의 형상화를 통해 안중근을 찬양하고 애도했다.

기운은 흰 무지개, 담력은 복두 같아,  
조나라 협객처럼 오랑캐 갓끈 늘이지 않았지만,  
의리의 총 솜씨를 갖추어 얻었구려.  
동쪽으로 바다 숨고 서쪽으로 산에 들어,

12) 豫양에 대해서는 김광일, 「의리의 탄생: 『史記』「刺客·豫讓」 다시 읽기」, 『中國學報』 96, 한국중국학회, 2021, 47~72쪽 참고.

13) 량치차오는 실제로 旅順에서 1910년 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안중근 재판을 직접 참관한 바 있다(이태진, 「안중근과 양계초: 근대 동아시아의 두 개의 등불」, 『진단학보』 126, 진단학회, 2016 및 『문화일보』, 2016년 12월 8일 기사 참고).

14) 『史記』·「刺客列傳」에 보이는 荊軻의 형상은 복합적이다. 폭군을 제거하기 위해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의협의 형상과 결국 실패로 끝난 비극적 영웅의 형상이 중요하다. 다만 그 외에 실패 원인을 암시하는 복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결단력이 부족한 평범한 사내의 형상 등도 보인다(오만중, 「荊軻 형상에 대한 小考: 초기 문헌 기록과 후대 시가를 중심으로」, 『中國人文科學』 61, 중국인문학회, 2015, 152쪽 참고).

15) 안영은 춘추시대 齊나라의 幸仲과 함께 나라를 강성하게 이끌었다. 개혁의 롤 모델인 이토 히로부미를 비유한다.

16) 국민당 주요 정치인, 湖南 湘陰人. 張之洞의 막료를 했고, 이후 국민당 활동에 참여하며 孫文을 적극 지지했다. 1945년 사망.

17) 원문에는 최초 1909년 己酉年에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船山學報』 壬申年(1932년) 제1책에 수록.

중요한 길 엿보다 걱정 살피는 기병에 어려움 당해도,  
 장량의 첩퇴와 형가의 비수였지.  
 그대 죽음 함께 못해 마음 더욱 부끄럽네,  
 홀연 일성 번개처럼 치닫더니.  
 원수 심장은 찢기고 온전한 거죽도 남지 않았네.  
 원수와 함께 살지 않고 차라리 원수와 함께 죽었구나.  
 나라가 망해 함께 망함이 본래의 천직이니,  
 원수 죽음 보게 되매 내 죽음은 더디구나.<sup>18)</sup>

중후반의 내용이다. 작자는 우선 안중근의 기개를 찬양하며 趙客에 비유했다. 戰國時期 제후국 중 특히 燕 나라와 더불어 趙나라가 武를 숭상하고 俠士가 많았던 데서 유래하여, 趙客은 일반적으로 俠士를 지칭하게 되었다. 李白의 「俠客行」 가운데에도 “趙客縵胡纓”라는 시구가 있다. 이를 활용하여 안중근의 기상을 용맹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그려냈다.

이어서 姓이 熊氏이고 주로 宜僚로 알려진 春秋時期 楚나라 출신의 걸출한 勇士의 형상으로 안중근이 무예에 뛰어났음을 표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근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至難한 일이었다. 하지만 형가나 장량처럼 끝내 조국을 위해 설욕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로 극복하여, 적 수뇌의 목숨을 거두고 자신도 그저 죽음을 재촉하는 의협의 모습으로 묘사했다. 작자가 구상한 정황 묘사와 감정 표현 사이사이에 전형적인 중국적 형상화를 연속적으로 적절히 배치했다.

중국의 또 다른 운문 詞 장르에서도 안중근을 기리는 여러 작품들이 나왔다. 그중 胡月<sup>19)</sup>이라는 작자가 지은 「생사자·안중근을 애도함(生査子·弔安重根)」<sup>20)</sup>은 총 4수의 작품도平易하면서 절절하게 애도와 찬양의 취지를 표현했다. 특히 제 2수에서 중국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상화와 전고의 활용으로 안중근의 결연한 의지와 성취를 찬양했다.

매섭다 안중근이여,  
 날카로운 비수 품고 손가락 잘라.  
 늙은 이토 죽이기로 맹세했지.  
 가을비 가을바람 휘몰아 칠 때,  
 평소의 뜻 하루아침에 이루었으니,  
 사해에 견줄 수 있는 이 없도다.  
 가만히 죄수 수레 들어가서는,  
 웃으며 공업 이름 이야기 했다네.<sup>21)</sup>

18) “氣湧素霓膽如斗，不爲趙客縵胡纓，辦得宜遼弄丸手。東竄海西入巒，偶狃要道偵騎難，張良椎荊柯已。不共汝死心更恥，忽然一聲光電馳，仇人心裂無完皮。不共仇人生寧共仇人死。國亡與亡本天職，矧見仇死死緩耳。”

19) 이 필명만 나와 있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20) 生査子は 詞牌名으로, 唐나라 教坊의 곡명이었으며 楚雲深 또는 梅和柳라고도 한다. 『滄浪雜誌』 1910년 3기에 수록.

작품이 실린 원 매체의 인쇄 상태가 불완전하여, 2행 끝 글자가 ‘匕’자로 보이지만 비수를 의미하는 ‘匕’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어지는 제 3수<sup>22)</sup>에 나오는 ‘手中刀’라는 표현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형가가 徐夫人의 비수를 품고 진시황을 살해하고자 했던 고사를 활용한 것이 된다. 다만 고사와는 달리 안중근은 뜻을 이루고서야 순순히 죄인이 되는 것으로 노래하여 사실을 반영했다.

다음 장에서 논의할 張良과 더불어 안중근 찬양에 가장 많이 활용된 인물이 ‘자객’ 형가였다. 초기 작품인 林棟의 「안중근(安重根)」<sup>23)</sup>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벽력같은 소리 천지를 놀라게 하니,  
아! 걸출한 사내 안중근이로다.  
형가의 비수쯤이야 어이 죽히 말하라,  
한 몸으로 전국의 혼 불러일으켰구려.<sup>24)</sup>

시의 전반부 내용이다. 형가와 서부인의 비수로써 안중근과 그 의거를 상징하고, 이로써 조선 국민의 영혼을 일깨웠음을 표현했다.

형가뿐만 아니라 『史記』·「刺客列傳」에 나오는 다른 자객들도 안중근의 형상화에 활용되었다.<sup>25)</sup> 이러한 경향 가운데 자칫 부정적 형상화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반드시 깊고 넘어가야 할 점이니 바로 ‘자객’의 개념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자객’이라는 말은 ‘전문적으로 사람을 몰래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 암살자’ 정도로 해석된다.<sup>26)</sup> 의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무도한 부정적 인물로서 인식되는 경향이 크다. 오늘날에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잔혹한 ‘킬러’·‘살인청부업자’를 떠올리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 시가에서 안중근 형상으로 비유된 자객들은 그러한 부정적이고 편협한 의미의 표상이 아니었다.

좀 더 살펴보면, 의거 이후 중국 언론기사에 보이는 안중근에 대한 인식은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었다. 시가들에서의 이미지보다 복잡했다. 자기 민족의 대의를 위해 희생한 ‘烈士’로부터 무모한 암살행위를 한 ‘테러리스트’까지 양극단 사이에 다양한 여론이 있었다.<sup>27)</sup> 때문에 안중근을 앞서의 자객들로 비유하는 경우, 피상적으로는 암살자를 연상하여 테러리스트로 형상화한 것이 아닌지 오해할 소지가 생긴다. 하지만 중국 시가에서 안중근을 자객들로 비유한 것은 앞서의 경우들과 같이 분명 암살자가 아니라 의협의 형상이다. 사실 전고에 보이는 본래 이미지도 대체로 ‘의협’으로서의 인품이 중시되는 것이었고, 나아가 ‘士道’의 상징으로 쓰인

21) “烈哉安重根，斷指懷利匕。誓殺老伊藤，秋雨秋風裏。素志一朝酬，四海無可比。從容入囚車，笑說功成矣。”

22) 제 3수는 다음 장에서 인용하고 논의함.

23) 린둥(1856~1920)은 肇徽라고도 불렸으며, 字는 東木, 法如, 號는 隆山. 福建省 壽寧縣 사람으로 『梅湖吟稿』 등을 남겼다. 이 시는 임동의 『梅湖吟稿』(1910)에 수록되었다.

24) “一聲霹靂驚乾坤，咄咄奇男安重根。慶卿匕首曷足云，隻身喚起全國魂。”

25) 『史記』·「刺客列傳」에 나오는 자객 5명 가운데 형가·예양·섭정 3명이 안중근으로 자주 비유되었다. 다만 曹沫과 專諸를 활용한 경우는 거의 없다. 지명도와 관계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6) 『표준국어대사전』의 해석. 『漢語詞典』에서도 ‘무기를 지니고 암살을 벌이는 사람(懷挾武器進行暗殺的人)’으로 풀이했다.

27) 徐丹, 「近代中國人對安重根事件的認識: 以1909~1937年中國報刊的報道為中心」, 『民國研究』 29, 南京大學中華民國國史研究中心, 2006, 181~195쪽 참고.

경향도 다분했다. 이 점을 특히 명확히 하고자 한다.

잇달아 살펴볼 비슷한 시기의 두 시가에서 안중근을 비유한 형가 등 자객은 역시 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하지 않았다.

한국은 망했지만 장사의 모범이 나왔음을 새겨본다.

.....

용이 울음 울고 호랑이가 뛰노는 듯 그 재주 기이하구나.

형가와 섭정에 귀의함에 다른 소원 없고,

한 자루 칼로 십만 군사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랄 뿐.<sup>28)</sup>

형가가 진왕을 찌른 것은, 그 뜻이 연나라를 보존하고자 함이었지.

연나라 사직은 비록 끝내 폐허가 되었지만, 영혼만은 백성들 마음을 감동시켰지.

천년 뒤에 우뚝 솟아, 계승자가 진번<sup>29)</sup>에 나왔도다.

이 이는 나라의 원수를 섬멸했으니, 빼어난 공로 해와 달에 기탁하네.

손가락 끊으며 엄숙한 기세로 맹세하고, 변복을 하고 관문을 넘었지.

구리 총알 붉은 빛 발하니, 마침내 적의 창자를 뚫었도다.

위험한 길 갈 제 어찌 편한 그늘을 고르랴, 잠시나마 번뇌를 떨쳐보노라.

남의 나라 멸함이 어찌나 쉽지 않은지, 어진 이들 다 죽이는 건 유독 어렵다네.

힘센 강도 같은 이<sup>30)</sup>에게 말 전하니, 위력으로 다 죽일 수는 없다네.<sup>31)</sup>

첫째 인용은 南社 창립자 중 한 사람인 高旭<sup>32)</sup>의 「한인 안중근 의거에 감동하여 道非 견회시의 운을 차운 하다(感韓人安重根事次道非見懷詩均)」<sup>33)</sup> 첫 구와 마지막 부분이다. 남사는 1909년 蘇州에서 卞少巽와 陳去病·柳亞子 등이 설립하여 신해혁명시기에 활발히 활동한 진보 색채의 문학단체이다. 조선의 항일애국지사 및 활동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작품들도 발표했다. 이 작품을 간략히 분석하면, 東漢末 建安七子の 대표 인물인 王粲의 「詠史詩」에 나오는 “살아서 못 장부의 영웅이 되고, 죽어서는 장사의 모범이 된다.”<sup>34)</sup>라는 구절을 활용하여 안중근을 귀감이 되는 영웅호걸로 평가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형가와 聶政의 구체적 형상으로 비유했다.

섭정 역시 전국시대의 자객으로 『戰國策』·『韓策』에도 보인다. 軹나라 深井里 사람으로 원수를 피해 齊

28) “記取韓亡壯士規，……龍吟虎跳此才奇。 皈依荆蠹無他願，一劍能當十萬師。”

29) 漢四郡 중의 하나인 진번군. 조선을 가리킨다.

30) “強梁은 『道德經』의 “強梁者不得其死.” 구절에 보이는 표현이다.

31) “荆刺秦王，其志欲存燕。 燕社雖竟墟，精爽動民肝。 苕苕千載下，嗣響在眞番。 伊人殲國仇，奇功託雙丸。 截指厲勢盟，變服踰門關。 銅柱發朱光，遂令虜腹穿。 走險詎擇蔭，聊以濯煩惱。 滅國豈不易，盡誅良獨難。 傳語強梁者，威力不可殫。”

32) 高旭(1877~1925), 시인. 字天梅, 號劍公, 江蘇省 松江府 金山縣人. 동생 高基가 그 시문을 엮어 『天梅遺集』이라 했다.

33) 『南社』 1912년 1기에 수록. 『天梅遺集』 중의 「未濟廬詩」에도 수록.

34) “生爲百夫雄，死爲壯士規。”

나라로 가서 가족 잡는 일을 하며 지내다 자신을 진심으로 인정해준 嚴仲子를 위해 재상 倭累를 죽이고 자결했다. 형가와 마찬가지로 부정적 암살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명분을 위해 한 자루 칼로 두려움 없이 대적하는 壯士 또는 의협의 형상화로 연결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인용은 黃侃<sup>35)</sup>이 지은 「안중근시(安重根詩)」<sup>36)</sup>이다. 황간은 청말 대학자인 章炳麟<sup>37)</sup>의 제자로서 주로 언어문자학에서 일가를 이루었다. 그는 제삼자의 입장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애도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애도함(吊伊藤博文)」이라는 작품도 발표했다.<sup>38)</sup> 동시에 의거에 깊이 감명 받아 이 시로써 안중근을 찬양했다. 량치차오와 같은 맥락에서 중국 지식인의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 시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형가가 진시황을 암살하고자 했던 목적은, 자신이 齊나라 출신이지만 주로 활동하며 인정받았던 燕나라를 保衛하기 위함이었다. 연 태자 단의 의뢰가 있기는 했지만 이른바 청부 암살로 보지는 않는다. 작자가 형가를 안중근의 보국충정에 부합하는 형상으로 여기고 활용했다. 특히 형가의 불굴의 정신이 안중근에게 계승되어, 그로 하여금 ‘힘센 강도’인 일제 침략자에 대해 두려움 없이 맞서게 했다고 노래했다.

박은식이 지은 전기문 『安重根傳』에 수록된 비슷한 경향의 작품을 예로 더 든다.

검의 기운 燕의 서울을 가로지르고, 몇몇 男兒 용 잡는 무에 지냈었지만,  
지금은 어느 누가 그러한가?  
한 모퉁이 산하에 남은 눈물, 장군의 의기를 알게 하네.  
그저 총탄 한 알이면 족하여, 벼락 치니 공연히 산도깨비 달아난다.  
태양을 뚫으니 백주에 무지개<sup>39)</sup> 드러우고,  
다섯 걸음에 피가 천년의 역사에 뿌려졌도다.<sup>40)</sup>

程善之<sup>41)</sup>의 「금루곡·안중근전에 쓰다(金縷曲·題安重根)」<sup>42)</sup>라는 작품이다. 인명이 나오지는 않지만 ‘검의 기운’은 형가의 기세를 의미한다. 마지막에 藺相如의 ‘血濺五步’<sup>43)</sup> 고사도 보인다. 앞의 작품들과 비슷한

35) 황간(1886~1935). 본명은 喬馨, 字 季剛, 湖北 蕪春人.

36) 『文藝俱樂部』 1912년 1권 2기에 수록.

37) 장빙린(1868~1936), 字 枚叔, 號 太炎, 浙江 餘杭人.

38) 이토의 죽음에 대해 비통해하는 일본 사람들의 심정을 표현하고, 일본을 변혁과 발전의 길로 이끌어 중국의 롤 모델이 된 이토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이 작품의 작자가 黃侃이 아니라 스승인 章炳麟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도 있다.

39) 무지개가 두 개의 고리 모양으로 뜰 때, 색이 강렬한 안쪽의 것이 수무지개가 되어 虹이라고 부르고, 색이 옅은 바깥쪽의 것은 암무지개가 되어 蜺라고 부른다.

40) “劍氣橫燕市, 數男兒屠龍身手, 而今誰是? 一角山河餘涕淚, 認取將軍軍意氣. 只消得一丸足矣, 霹靂下空魑魅走. 貫太陽白晝垂雌蜺, 五步血千秋史.”

41) 청산즈(?~1942), 安徽 歙縣 출신. 南社 성원으로 韻語學과 필기소설·불교학 등에 조예가 깊었다. 일부 출처에는 작자명이 없이 前人으로 되어 있거나 善之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42) 금루곡은 詞牌名으로 ‘賀新郎’·‘乳燕飛’로도 불린다. 曲牌名으로도 쓰였다. 이 작품은 여러 전기문에 수록되었다.

43) 다음 장에서 상세히 논의.

형상화를 사용하여, 안중근의 의거는 형가의 의기와 인상여의 공적처럼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예찬했다.

위와 같이 중국인들은 안중근을 고대 중국의 자객·협사 형상에 투영하고 그 진고를 적극 활용했다. ‘義’를 숭상하며 豪俠한 기풍을 애호했기 때문이다. 또한 평소 「刺客列傳」과 같은 관련 문헌들을 많이 접하고 司馬遷이 뜻하는 ‘자객’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로써 자연스럽게 의협 안중근을 표상하게 되었다. 周曾錦<sup>44)</sup> 같은 문인도 박은식이 지은 전기문을 읽고 감명을 받아 「안중근전을 읽고(讀安重根傳)」<sup>45)</sup>라는 題詩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일찍이 「자객열전」을 읽고 나서는, 임협 명성 자못 사랑했었지.  
 옛 사람이 될 수는 없다 하여도, 강개함은 넘치는 정이 있었네.  
 내 눈과 귀로 보고 들은 바 가운데, 안중근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었지.  
 분을 내어 나라의 원수를 죽였으니, 일격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네.  
 어찌 그저 사람들만 놀라게 했나, 호걸들도 하염없이 눈물 흘렸지.<sup>46)</sup>

안중근 관련 내용이 집중된 시의 전반부이다. 안중근에 대해 보고들은 적은 없었지만, 의거로 인해 중국의 자객들에 대해서보다 더 깊은 감명을 느꼈음을 말하고 있다. 유가적 도덕체계에 영향을 받고 동시에 호협한 기풍을 흠모하는 중국 문인들에게 忠·義·勇·희생정신 등 덕목들을 구현한 안중근은 고대 중국의 진정한 자객 즉 의협의 형상과 잘 부합되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물론 중국에서 안중근 의거에 대해 무모하고 무익한 행위로 조선의 식민지화를 재촉할 뿐이었다고 비판한 인식도 있었다. 이를 일축하는 내용의 깊이 있는 시가를 지으며 형가의 형상을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형가가 진왕 찌른 일 이루어지지 못하여,  
 연나라 망하게 한 재앙 이로써 빨라졌지.  
 육국이 다 망하자 천하가 분노하고,  
 변방 군사가 한번 부르짖자 진나라 족속을 이겼다네.  
 사물이 극에 이르면 이내 반대로 나아가니 하늘의 도리가 그러함이라,  
 ……  
 한국이 마침내 망함에 혹자는 그를 책망하지만,  
 그 말은 기괴하고 그릇되어 나는 기록하지 않노라.  
 5국은 처음에 자객행위가 없었지만,  
 연나라가 하나의 예를 만들어 같이 망했지.

44) 字는 晉琦, 江蘇省 通州人. 光緒 年間에 浙江省에서 縣監을 지냈다. 『藏天寶遺詩』 등을 전한다.

45) 박은식의 『安重根傳』(1912년)에 수록.

46) “嘗讀刺客傳, 頗愛任俠名. 古人不可作, 慷慨有餘情. 耳目所聞見, 不謂有安生. 奮臂殺邦讎, 一擊使人驚. 豈惟使人驚, 豪傑涕縱橫.”

안군이 이룬 공적 형경을 뛰어 넘어,  
이 빼어난 문장도 기쁘게 사마천을 이었구나.<sup>47)</sup>

제목 미상, 인적사항 미상인 狄郁이라는 작자의 작품이다.<sup>48)</sup> 형가의 자객행위가 연나라의 멸망을 재촉했다고들 비난하기도 했지만, 이로써 결국 무도한 秦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안중근 의기도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라 중대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고 보았다. 일제 패망의 사필귀정을 떠올리게 한다. 또 안중근이 훌륭하게 의거에 성공함으로써, 이를 기록한 박은식의 전기문도 사마천의 「刺客列傳」을 잇는 빼어난 문장이 될 수 있었다고 찬양했다.

시간이 흘러 1930년대 들어서서는 백화로 된 시가들도 여럿 보이는데, 역시 형가의 형상을 활용한 경향이 많이 보인다. 蘇鳳<sup>49)</sup>의 「의사 형가를 슬퍼함 - 이웃 나라의 영웅에게 바침(傷義士荊軻 - 獻給隣國的一位英雄)」<sup>50)</sup>이라는 시가가 대표적이다.

“바람은 맑고 易水是 차갑네.  
장사는 한번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sup>51)</sup>  
弱者의 비수 한 자루, 진왕의 간담 서늘케 했구나.  
일이야 비록 성공하지 못했지만, 장사 이름 영원히 천년을 드리우네.  
마치 진왕에게 “두 다리 쪽 뺏고 앉아 꾸짖던”<sup>52)</sup> 때,  
그 거칠고 웅장한 외침 생각나게 하는구나.  
진왕 어전의 구리기둥에, 남겨진 지울 수 없는 분개도 상기시켰네.  
.....  
義士 형가여!  
나는 왜 또 당신 때문에 눈물 흘리는가?  
두고 보라!  
어느 날 아침, 끝내 비수 한 자루로 바다 같이 깊은 원한 갚게 됨을.<sup>53)</sup>

형가를 ‘義士’로 규정하고, 그 형상과 고사를 생동감 있게 묘사했다. 시작 부분 두 구절은 형가 본인이 읊었다는 이른바 「荊軻歌」의 앞 두 구절을 그대로 사용했다. 진왕을 암살하기 위해 떠날 때 연 태자 단이 餞別

47) “荊軻刺秦事不成，亡燕之禍由茲速。六國盡亡天下憤，戍卒一叫嬴秦族。物極乃反天道然，……韓國遂亡也咎君，斯言奇謬吾弗錄。五國初無刺客行，燕台一例同傾覆。安君成績過荊軻，奇文喜有龍門續。”

48) 長沙鄭沅의 전기 『安重根』(1917)에 수록.

49) 인적사항 미상.

50) 『民國日報』 1932년 1월에 등재.

51) 易水, 河北省 西部에 있는 강.

52) ‘箕踞以罵’는 『史記』·「刺客列傳」의 ‘荊軻’ 부분에 나오는 성어.

53) “風蕭蕭兮易水寒，壯士一去不復還。”弱者的一把匕首，寒了秦王的膽。事情雖然沒有成功，壯士永垂於千載。仿佛還想起“箕踞以罵”的時候，那種粗暴的雄壯的吶喊；仿佛還想起秦王殿上的銅柱，留着不可磨滅的憤慨。……義士荊軻呵！我又何必為你流淚！瞧着吧！一朝，終有一把匕首報了沈仇如海。”

했다는 쓸쓸한 易水의 정취가 비장한 느낌을 돋운다. 형가 스스로의 입을 통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떠나는 결연한 의지를 강조했다. 형가가 진왕을 암살하려던 뜻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당당한 자세로 꾸짖던 모습도 담았다. 모두 의거와 재판에 임하던 안중근의 비장함과 당당한 태도를 함께 상상하게 한다.

형가처럼 안중근도 비록 ‘弱者’였지만 ‘의사’로서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이며, 나아가 희생이 헛되지 않고 후대에 원한을 갚게 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도 더했다. 일부 작품들에 보이는 단순하고 피상적인 형상화와는 달리 인물 형상 및 전고가 작자의 詩情에 세밀하게 융화되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1932년 4월 상해에서 윤봉길 의거가 나고 나서는 두 의사를 함께 애도·찬양한 작품도 나왔다. 商生才<sup>54)</sup>의 「꽃다운 혼을 애도함(悼英魂)」<sup>55)</sup>이 대표적이며, 역시 비슷한 형상화 양상을 보인다.

#### - 안중근·윤봉길 선생 -

易水의 찬기 빼에 스미고, 가을바람 맑고 서늘하게 이는데.  
성난 머리카락 갓 뚜껑을 뚫고, 흰 무지개 태양을 꿰뚫네.  
연공자와 영원히 이별하니, 다시는 고향에 돌아오지 않으리.  
장사는 비수를 품고, 천리 떠나 진왕을 찌르리.  
지도가 다 하자 날카로운 비수 드러나고, 빙빙 화당을 도네.  
공을 이룸이 촌각에 달렸는데, 대기하던 신하들 별떼처럼 달려드네.  
폭군의 목숨을 빼앗으려던 호걸은 칼 아래 죽노라.  
부질없이 영웅의 뜻 짊어졌건만 선혈만이 모래밭을 물들였구나.<sup>56)</sup>

애처롭다 고점리, 진나라 조정 계단에 곧게 서있네.  
좋은 벗 죽음을 목도하니 울부짖음 금할 길 없구나.  
폭군은 그 눈동자를 도려내고 궁중에서 축을 타라 명하네.  
가슴 속 한풀이 할 마음 품고 수치와 굴욕 참았지.  
하루아침에 진나라 조정으로 달려가 남당이 손에 움켜쥐었네.  
두 눈은 이미 멀었지만 두 귀는 콧바람 소리 듣지.  
폭군의 심장을 겨누고 힘껏 내리쳤건만.  
소원을 이루지도 못하고 다시 칼끝을 피로 물들였구나.<sup>57)</sup>

전체는 오언배율 총 8수로 된 장편이다. ‘安重根·尹奉吉先生’이라는 부제가 붙어있고, 주로 위에 인용한 앞 2수에서 인물 형상의 활용이 두드러진다. 제 1수에서는 형가의 고사를 구구절절 세밀하게 사용하여 마치

54) 인적사항 미상.

55) 『縣村自治』 1932년 2권 7기에 수록.

56) “安重根與尹奉吉先生：易水寒透骨，秋風起蕭涼。怒髮衝冠蓋，白虹貫太陽。長別燕公子，不復還故鄉。壯士懷匕首，千里刺秦王。圖盡尖刀現，團團繞畫堂。功成在片刻，待臣如蜂忙。奪得暴主命，豪傑刀下亡。空負英雄志，鮮血染沙場。”

57) “哀哉高漸離，端站秦庭階。目睹良友死，不禁號陶哭。暴主剗其睛，宮中命敵策。胸懷雪恨心，忍羞而含辱。一旦赴秦庭，鉛塊手中握。兩目雖已盲，雙耳聞鼻息。對準暴主心，盡力猛拚擊。不但願未隨，復染刀頭血。”

連環畫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 생생하다. ‘壯士’ 형가는 서늘하여 비장한 易水에서 결연한 의지를 다지며 연태자와 이별하고 사지로 떠난다. 장면이 바뀐다. 마침내 드러난 비수로 진왕을 찌르려는데 신하들이 달려들어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고 죽임을 당한다. 자객·영웅 그리고 폭군의 형상화가 선명하다.

두 번째 수에서 高漸離의 형상을 활용한 비유도 짙진하면서 생동감이 넘친다. 간략히 살펴보면 고점리는 전국시대 말기 燕나라 사람으로 현악기 筑의 고수였다. 형가의 친구로, 함께 진시황 살해를 도모했다. 실패하여 형가가 죽자 이름을 바꾸고 머슴살이를 하다 발각되어 눈을 멀게 하는 형벌을 받았다. 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진시황을 위해 축을 연주하다 그 속에 넣어둔 쇠망치로 다시 그를 죽이려했지만 또 실패하고 끝내 죽임을 당했다. 자주 등장하는 인물은 아니지만 역시 忠義와 집념의 표상으로 활용했다. 제 1수에서 주로 안중근을 형상화하고, 2수에서는 운봉길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두 수에서 함께 두 의사를 찬양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위와 같이 중국인들은 대체로 추호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거한 안중근의 氣節을 담대하고 집념이 있는 인물과 고사로서 형상화하여 찬양하고 그 죽음을 애도했다. 가장 많이 비유한 인물이 형가였다. 형가 외에도 비슷한 이미지의 자객 및 협사들인 예양·요리·섭정·고점리·의료 등등이 안중근을 ‘의협’으로 형상화하는 데 적절히 활용되었다.

#### IV. ‘영웅’·‘지사’ 형상으로 ‘위인’ 안중근 애도·찬양

다음으로 중국 시가들은 앞서 논의한 ‘자객’·‘협사’들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는 고대 중국의 여러 ‘영웅’·‘지사’ 형상을 통해 안중근을 ‘위인’으로 노래했다. 오해의 소지가 없는 긍정적 형상화이다. 우선 량치차오가 「秋風斷藤曲」에서 형가·예양보다 먼저 안중근으로 비유한 인물들로, 先軫(?~B.C.627)과 楊儀(?~235)를 예로 들 수 있다. 선진은 춘추시기 晉文公 때의 장수이다. 수많은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다 마지막에 狄人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 그와 관련하여 “투구를 벗고 적진에 들어갔다 죽었다. 狄人이 그 머리를 돌려보내니 얼굴이 마치 살아있는 듯했다.”<sup>58)</sup>라는 기록이 돋보인다.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장렬히 전사한 인물이다. 선진의 얼굴 모습과 안중근이 두려움 없이 이토 앞으로 나아가던 모습이 함께 연상된다. 威公은 중국 三國時代 蜀漢의 문신이었던 楊儀를 가리킨다. 忠義로 널리 알려졌다. 문인·사상가의 기반을 갖추고 동시에 충성스런 군인이었던 안중근, 그 국가를 위한 결연한 태도를 형상화했다.<sup>59)</sup>

「秋風斷藤曲」에서는 唐雎와 그 ‘流血五步’ 고사도 의거를 비유하는 데 사용했다. 戰國時期 강자인 秦나라가 魏나라의 安陵을 탐내어 무력으로 진의 영토 일부와 교환하고자 했다. 이에 魏 安陵君이 당저를 사신으로 파견하여 거절 의사를 밝혔다. 秦王이 위협을 가했으나 당저는 끝내 굴하지 않았다. “만일 선비가 필연코 노

58) “免胄入敵師，死焉。狄人歸其元，面如生。”(『左傳』·『僖三十三年』)

59) 최형욱, 「梁啓超의 秋風斷藤曲 탐구」, 『동아시아문화연구』 49,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299·311쪽 참고.

하게 된다면 엷드러진 시체가 돌이 되고, 피가 다섯 걸음이나 흘러 넘쳐 천하가 소복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sup>60</sup>)라고 당당히 일갈했다. 당저의 용기에 깊은 인상을 받은 진왕은 안릉을 정복하려는 야심을 잠시 접어두었다. 이후 ‘流血五步’는 적국의 수뇌를 척살함을 의미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안중근이 이토를 성공적으로 사살하고 “코레아 후라(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던 호탕함을 연상시킨다.

이와 비슷한 ‘영웅’·‘지사’ 이미지의 인물 형상으로는 張良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자객’·‘협사’ 형상의 인물로 형가를 사용한 것과 쌍벽을 이룬다. 예를 들어 앞 장에서 형가를 논의하며 인용한 胡月的 「生查子·弔安重根」 제 3수에서는 잇달아 안중근을 장량에 비유하며 그 성취를 극찬했다.

장하다 안중근이여, 이번 거사 참으로 쉽지 않았지.  
손 안에 든 칼 내려놓고는, 대한 만세 세 번 크게 외쳤네.  
장량이 박랑사에서 철퇴 내리 친 일, 천년 동안 청사에서 찬미했었지.  
옛사람 이제 와 이를 본다면, 버럭 화를 내고야 말리.<sup>61</sup>)

劉邦을 도와 漢나라를 세운 장량은 秦始皇을 椎殺하고자 博浪沙에서 倉海力士<sup>62</sup>)로 하여금 철퇴로 진시황의 수레를 내리치게 했다. 주도자 장량은 조국 韓나라를 멸망시킨 진시황에 대해 복수를 꾀했지만, 창해역사가 진시황이 탄 수레가 아닌 副車를 내리치는 바람에 실패했다.<sup>63</sup> ‘手中刀’는 형가의 비수를 말하며, 역시 저격 후 “코레아 후라!”를 외치던 안중근을 연상케 한다. 먼저 형가로 형상화한 후 주로 장량의 형상과 고사를 통해 안중근 의거를 직접적으로 비유했다.

장량은 의거에 실패하고 下邳<sup>64</sup>)에 은신했다가, 결국 유방이 漢을 세우는 데 큰 공을 세워 留侯에 책봉되었다. 이에 중국인들이 장량의 사적을 역사적인 영웅·위인의 기록으로 찬미해왔다. 하지만 의거에 성공한 안중근에 비하면 칭찬할 바는 못 된다는 취지로 안중근을 극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안중근을 찬양하는 내용을 위주로 하며, 4수에 걸쳐 의거의 준비·실행·결말 그리고 교훈 제시<sup>65</sup>)에 이르기까지 차례대로 전개해 나간 특징이 돋보인다. 그 가운데 인물 형상과 고사를 활용한 비유가 적절히 안배되었다.

언급했듯이 안중근을 제재로 한 시가들은 신문·잡지에 발표되기도 했지만 한중 양국 문인들이 엮은 전기문을 읽고 감명을 받아 쓴 題詩로서 전하기도 한다. 대체로 문인·지식인들이 지은 이 작품들은 더욱 더 안중근에 대한 애도·찬양의 내용을 위주로 하고, 전형적인 형상화의 기법을 많이 사용했다. 장량 및 창해역사의 형상을 활용한 여러 작품을 살펴본다. 박은식이 지은 전기문에 수록된 비슷한 경향의 작품들이다.

60) “若士必怒，伏屍二人，流血五步，天下縞素，今日是也。”(『戰國策』·『魏策』)

61) “壯哉安重根，此學良不易。放下手中刀，三呼韓萬世。子房博浪椎，千載美青史。昔人今見之，赫赫有生氣。”

62) 滄州力士 또는 倉海君·倉海客으로도 알려졌다. 『史記』·『留侯世家』에 보인다.

63) 『史記』·『留侯世家』 중의 ‘誤中副車’ 고사이다. 부거는 황제가 이동 중에 바뀌 타거나 시중들기 위해 뒤따르는 수레로 屬車라고도 한다.

64) 江蘇省 북단에 있는 下邳縣의 옛 이름. 秦末의 隱士이자 병법가인 黃石公이 장량에게 병서를 전해 주었다는 고사가 있다. 숨어 지내던 장량은 이 병서를 읽고서 유방의 대업을 도왔다고 전한다.

65) 이 詞의 마지막 제 4수는 주로 중국을 위한 교훈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어떤 이 鐵血 굳게 쥐고서, 장검 기대 金城湯池 끌어당겼나?  
괴로움 남은 부류 변함없으니, 잔혹함 진시황을 애통해 하네.  
군신 모두 옥됨을 참고 견뎌도, 호걸 홀로 슬퍼하며 상심했지.  
박량사의 철퇴 여태 있으니, 삼한에 나라 아직 안 망했다네.<sup>66)</sup>

강개하게 한 몸 버려 승냥이와 이리 쫓아내니,  
한없이 슬픈 바람이 나라 위해 죽은 이 애통해하네.  
노예 모습 기꺼이 함은 살아도 치욕이라,  
호협한 기상 길이 남기니 죽어서도 향기롭네.  
철혈 같은 그대 마음 멈추기 힘들 알았건만,  
제 산하 찾으려던 소원 못 이뤘네.  
사람마다 어이 박량사의 장량 되랴,  
이웃 나라 한국이 망했다단 말 못하리라.<sup>67)</sup>

원수의 옷 위에 피 뿌리니, 제 한 몸 스러짐을 어찌 아끼랴.  
저 진왕의 副車 내리 침을 내가 비웃나니, 장자방은 아녀자일 뿐이로세.<sup>68)</sup>

창해역사 이야기 내 들었나니, 철퇴 하나로 강한 진의 기운 꺾었다지.  
그 유풍 이제껏 전해졌거늘, 한국에 사람 없다 말하지 말라.<sup>69)</sup>

첫 번째의 오언율시는 張震靑의 「삼가 안선생전에 쓰다(謹題安先生傳)」<sup>70)</sup>로, 가장 일반적인 형상화 양상을 보인다. 首聯·頷聯은 형가의 고사를 활용했는데, 의거 이후에도 조선에 식민화의 불행이 계속되었음을 표현했다. 이어서 頸聯과 尾聯은 장량의 고사를 활용하여 안중근의 외로운 희생이 헛되지 않고 그 정신이 살아서 조선의 독립을 일깨우게 될 것을 의미했다. 이와 같이 형가와 장량을 함께 사용하여 형상화하는 경우도 많았다.

두 번째의 칠언율시는 陳駕春<sup>71)</sup>의 「안중근선생을 애도함(吊安重根先生)」으로, 호협한 기상으로 충만한 안중근이 조국 회복을 위해 기꺼이 헌신한 희생을 기렸다. 특히 장량의 형상을 통해 결국 그 정신이 멸하지 않을 것임을 노래했다.

세 번째 작품은 查士瑞의 「안중근전에 느낌이 있어 짓다(安重根傳感賦)」로, 역시 ‘誤中副車’ 고사를 사용

66) “何人操鐵血，仗劍挽金湯。疾苦依遺類，兇殘痛始皇。君臣皆忍辱，豪傑獨悲傷。博浪椎猶在，三韓國未亡。”

67) “捐軀慷慨逐豺狼，無限悲風痛國殤。甘作奴顏生亦恥，長留俠骨死猶香。知君鐵血心難已，還我河山願未償。安得人人恒博浪，隣邦不敢謂韓亡。”

68) “血濺仇者衣，何惜一身毀。笑彼中副車，子房婦人耳。”

69) “我聞滄海士，一椎摧強秦。此風流終古，勿謂韓無人。”

70) 이 4작품 모두 박은식의 『安重根傳』(1912년)에 수록.

71) 위 시들의 작자 인적사항은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 陳駕春의 경우, 『湖南愛忠錄初稟』이라는 문헌에 성명만 보인다.

했다. 장량의 秦王 암살 계획이 실패한 반면 안중근은 제대로 성사시켰음을 표현했다. 장량이 아녀자 수준이었던 반면에 안중근은 자신의 희생을 대가로 끝내 위업을 이뤄냈다고 찬양했다. 네 번째는 王燾의 「안중근선생전을 읽고(讀安重根先生傳)」 전반부이다. 마찬가지로 장량·창해역사가 진왕의 기세를 꺾어버린 형상화를 통해 안중근의 유품이 영구히 한국에 전해 내려갈 것<sup>72)</sup>임을 노래했다.

이러한 형상화로 안중근을 애도하고 찬양한 작품들은 일일이 예를 들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대체로 유사하다. 다만 추가하여 漢章<sup>73)</sup>의 「생사자·안중근소전에 쓰다(生査子·題安重根小傳)」<sup>74)</sup>는 장량으로 비유하는 가운데 조선의 상황이 갈수록 나빠짐을 안타까워했다. “한 손으로 미친 물결 잡아 당겨도 강하의 흘러내림은 어쩔 수 없네.”<sup>75)</sup>라고 한 구가 특히 안타깝고 인상적이다.

중국인들은 형가 못지않게 장량으로 많이 비유했고, 더불어 또 다른 영웅적 인물들도 함께 동원하여 효과를 배가시키기도 했다. 몇 작품 더 살펴보고자 한다.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온화하고 점잖고 의젓한 장자방이,  
 박랑사에서 귀신같이 몽둥이를 내리쳐 호랑이와 이리를 놀라게 한 것을.  
 또 보지 못했는가, 양을 몰아 호랑이를 상대했던 송문산<sup>76)</sup>이,  
 義를 취하고 仁를 이루느라 늘 험난한 길을 갔던 것을.  
 영웅은 천고에 특별한 혼백을 키워냈으니,  
 뜻한 바에 성패를 가리지 않고 삶과 죽음을 바꿨네.  
 안군은 타고난 지혜가 매우 탁월했고,  
 뜨거운 피가 끓어올라 바다 물도 데웠네.  
 ……  
 창주역사가 고금에 빛남은,  
 義로 나아감에 차분하고도 만족했기 때문이리라.  
 ……  
 목덜미의 피를 옷에 튀기며 겨우 다섯 걸음 걷자,  
 강성한 이웃은 결국 대들보를 잃었구나.<sup>77)</sup>

清朝의 일반 관료·정치인이었던 林樹聲이라는 작자가 지은 「동한열사가(東韓烈士歌)」<sup>78)</sup>에서 형상화가 두드러진 부분들이다. 의젓하고 온화한 인품의 장량이 호랑이나 이리 같이 폭압적인 진시황을 놀라게 했다는

72) ‘終古’는 “懷朕情而不發兮，余焉能忍而與此終古。”(『楚辭』·「離騷」)에서 유래.

73) 인적사항 미상.

74) 『雲南』 1913년 1기에 수록.

75) “隻手挽狂瀾，莫補江河下。” 여기서 ‘江河下’는 ‘江河日下’ 즉 강물이 날마다 아래로 흘러감을 말하며, 날이 갈수록 상황이 나빠짐을 의미한다.

76) 文天祥(1236~1283), 字 履善, 自號 文山. 南宋의 충신으로元到 맞서 끝까지 절개를 지켰다.

77) “君不見，雍容儒雅張子房，博浪神椎震虎狼。又不見，驅羊當虎宋文山，取義成仁老間關。英雄千古孕奇魄，志莫敗成生死易。安君元識卓更超，熱血蒸騰沸海潮。……滄州力士古今輝，就義從容益滿足。……頸血濺衣纔五步，強隣竟已失長城。”

78) 박은식의 『安重根傳』(1912년)에 수록.

것은 분명 안중근이 이토를 응징한 의거를 연상시킨다. 이어서 장량의 義氣는 宋代 文天祥이 元의 침략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며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불굴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다시 안중근에게서 키워지고 실현되었다고 노래했다.

또한 전국시대 趙나라 惠文王 때의 충신이자 책략가인 藺相如의 ‘血濺五步’ 고사도 사용했다. 『史記』·「廉頗藺相如列傳」에 보이는 내용으로, 인상여는 霸者이던 秦 昭襄王의 무례에 맞서, 다섯 걸음 안에 자신의 목을 찢러 피를 진왕에게 뿌리겠다고 일갈하며 趙나라를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했다. 唐睢의 ‘流血五步’ 고사와 흡사한 내용이다. 인상여는 한때 장군 廉頗에게 시기를 받기도 했지만 국익을 위해 넓은 도량으로 포용함으로써 감동한 염파와 이른바 ‘刎頸之交’를 맺게 되고, 협력하여 조나라를 굳건히 지켰다. 역시 국가를 위해 의거를 일으킨 안중근이 훌륭한 인품과 지혜도 갖추었음을 연상하게 한다.

여러 작품들에서 안중근에 대해 장량과 형가를 위주로 하고 다른 다양한 인물 형상들도 함께 비유하여 영웅과 의협으로 긍정적·복합적 이미지를 더욱 제고시켰다. 長沙徐雅衡<sup>79)</sup>이라는 작자의 「건아행 - 조선지사 안중근 의거를 기록하다(健兒行 - 紀朝鮮志士安重根事)」<sup>80)</sup> 앞부분을 본다.

건아의 기백 한 말의 붉은 빛깔이라,  
철석같은 마음 벼락같은 손으로,  
무소와 코끼리 힘껏 내리치니 마치 개 잡는 듯했지.  
불행히 나라 잃은 노예 되었지만,  
유가의 무리 되기는 달갑지 않았으니,  
형가와 섭정 그 짝이 되었지.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임금과 부모의 원수라,  
건아가 한국에 보답하려는 마음과 뜻 류후 장량 같아라.<sup>81)</sup>

우선 제목에서 안중근을 健兒·志士로 자리매김하고, 시의 내용에서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보답하고자 하는 기백과 이를 결연히 실행으로 옮기는 모습을 그렸다. 유약한 儒家 무리가 아닌 형가·섭정과 같은 의협의 형상이다. 잇달아 장량의 영웅·지사적 의지도 연결시켰다. 더해져 진정한 士道の 표상으로 평가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형가와 장량으로써 함께 비유하는 내용도 많이 보인다. 朱榮泉<sup>82)</sup>이 지은 「安重根」<sup>83)</sup>이라는 시의 頸聯과 尾聯도 두 인물에 비유하는 내용이다.

79) 인적사항 미상.

80) 『大夏叢刊』 1915년 1권 1기에 수록.

81) “健兒膽紅一斗，鐵石心霹靂手。力搏犀象如屠狗，不幸爲亡國奴。不屑爲儒家流，荊卿聶政乃其儔。戴天不共君父讐，健兒報韓心志同留侯。”

82) 朱榮泉(1898~1969), 이름이 仁으로도 알려져 있고, 上海 滬江大學 文學系 교수를 지낸 인물로 추정된다.

83) 『約翰聲』 1918년 29권 8기에 수록.

충의의 마음 고되게 지켜오다, 대사를 끝냈으니 이제 어디에 쓰일꼬?  
이와 견줄 우리나라 사람 찾아보니, 형가의 비수요 장량의 철퇴로다.<sup>84)</sup>

중국인들은 忠義의 표상으로서 형가와 장량을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컸고, 이들을 자연스럽게 안중근과 연계시켰다.

중국적 인물 형상화와 비유가 특히 다채로운 작품으로 汪笑儂<sup>85)</sup>이라는 경극 배우 겸 작가가 지은 「조선 자객에게 바침(贈朝鮮刺客)」<sup>86)</sup>을 들 수 있다. 당시의 동아시아 정국을 한 편의 극으로 설정하고, 앞서 언급한 여러 인물들을 함께 등장시킨 점이 매우 특색 있다.

아시아에서 연출된 연극 예사롭지 않으니,  
절세의 걸출한 인재 죽음으로 막을 내리네.  
잡배이던 형가 공연히 깔보며 꾸짖었고,  
필부이던 예양 그저 미치광이인 양 했었지.  
하루살이도 이제 큰 나무 흔들 수 있고,<sup>87)</sup>  
땅강아지나 개미 같은 미물도 긴 제방 쉽게 무너뜨리네.<sup>88)</sup>  
당시 박랑에서 철퇴가 날래지 못했지,  
부기 잘못 내리친 장량을 비웃노라.<sup>89)</sup>

위는 排律의 후반부 내용이다. 형가와 예양이 대사를 도모하기 위해 수모를 견디며 절치부심하던 모습, 장량이 진왕을 추살하려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 반면에 의거를 성사시킨 안중근의 통쾌한 모습을 마치 경극 무대 보듯이 묘사했다. 또 하루살이도 큰 나무를 흔들 수 있고, 큰 제방도 땅강아지나 개미구멍 같은 작은 힘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다는 비유를 통해 작은 노력들이 쌓여 언젠가는 큰 뜻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덧붙였다.

한편 비교적 적게 사용된 인물 형상으로 申包胥 등도 있다. 예를 들어 憶이라는 필명의 작자는 「安重根」<sup>90)</sup>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84) “忠肝義膽苦支持，大事去矣安用之？試取邦人作比例，荊卿匕首子房椎。”

85) 滿洲人，清末民初의 著名한 京劇 劇作家 겸 배우로, 京劇改良運動에 큰 역할을 했다.

86) 『寸心』 1917년 제5기에 수록.

87) ‘蜚蜉撼大樹’라는 成語를 사용했다. 본래는 ‘하루살이가 큰 나무를 흔들다’ 즉 스스로 자기 힘을 헤아리지 못함을 비유한다. 출처는 明代 劉昌의 『懸筭瑣探恃才傲物』에 나오는 “湯家公子喜誇詡，好似蜚蜉撼大樹.”라는 구절이다.

88) 큰 제방도 땅강아지나 개미의 구멍과 같은 작은 힘에 의해 무너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출처는 『韓非子』·『喻老』에 나오는 “千丈之堤以蠅蟻之穴潰，百尺之室以突隙之煙焚.”이라는 구절이다

89) “亞洲演出劇非常，絕世雄才此下場。小輩荊軻徒嫚罵，匹夫豫讓但佯狂。蜚蜉大樹今能撼，蠅蟻長隄未易防。博浪當年錐不利，副車誤中笑張良。”

90) 이 작품은 『崇德公報』 1915년 1기 「文苑」에 발표된 것이고, 翼郎이라는 필명으로 발표된 같은 작품(『約翰聲』 1918년 29권 8기)도 있다. 翼郎 또는 陳翼郎 명의의 「金縷曲·題安重根傳」(『神州』 1914년 1권 2기, 『民國日報』 1916년 9월 25일, 『新世界』 1918년 5월 25일)이라는 작품도 있다.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계책이 다 하여 진나라 조정에서 곡했지만,  
 한국이 망한 원한 아직 추슬러지지 않았네.  
 팔이 잘리고도 경기<sup>91)</sup>를 도모하고,  
 의로움에 참을 수 없었던 전횡<sup>92)</sup>이로다.  
 차라리 국민을 위해 죽을지언정,  
 노예로 살기를 달가워하지 않았네.  
 하루아침에 공분을 씻으니,  
 웃음을 머금고 희생으로 나아가노라.<sup>93)</sup>

애국지사의 형상인 신포서와 그 고사를 사용하여 안중근을 애도했다. 신포서는 楚昭王 때의 大夫이다. 초 나라에 원한을 가졌던 伍子胥의 계략에 따라 뗏가 초를 공격하자 초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었다. 이에 신포서가 秦에 가서 7일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하고 울면서 袁公에게 초의 절박한 상황을 알리며 구원을 요청했다. 애국충정에 감동한 애공이 초를 구원했다. 안중근도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했지만, 신포서와 달리 한국 멸망의 원한을 다 풀어내지 못했다고 안타까워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계속해서 요리와 田橫으로도 비유하여 안중근의 애국적이고 희생적인 모습을 표현했다.

다음으로 앞서 인용한 林棟의 「安重根」도 전반부에서 형가와 서부인의 비유로써 안중근과 의거를 비유하고, 잇달아 널리 알려지지 않은 董公이라는 영웅적 인물로 안중근을 형상화했다.

씩씩한 동공 속으로 자신을 다잡아,  
 몸 죽을 줄 알면서도 원망의 말 없었다네.<sup>94)</sup>

동공은 漢高祖 劉邦이 군대를 이끌고 洛陽에 이르렀을 때 막아서서 정당한 명분을 강조했던 新城의 三老 중 한 사람이다. 강자의 무도한 침략에 대해 동양평화의 정당한 명분으로 맞서 결연히 행동하고 끝내 '원망의 말이 없었던' 안중근을 비유하는 데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안중근에 대해 다양한 영웅·지사로 형상화하며 그 결연한 의기와 희생정신을 칭송하고 안타까워 했다. 顧實<sup>95)</sup>이라는 문인이 지은 「조선 의사 안중근을 슬퍼함(哀朝鮮義士安重根)」<sup>96)</sup>도 그러한 경우로, 魯陽

91) 慶忌는 춘추시기 吳王 僚의 아들이다. 여러 史書의 관련 記載가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闔閭가 刺客 要離를 보내 조카인 경기를 살해하고 왕위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요리는 자기 팔을 자르고 처자식을 죽이기까지 했다(『左傳』·「袁公二十年」 및 『吳越春秋』·「闔閭內傳」).

92) 狄縣(山東 高青) 사람. 전국시기 七雄 중 하나이던 齊의 宗室 田氏의 一族이다. 형들과 함께 제를 농락하던 秦에 반기를 들고 제를 다시 일으켰다. 劉邦이 천하를 평정하자 賓客 5백여 명과 함께 지금의 田橫島에 숨어 살았다. 漢朝에 소환되어 洛陽으로 가던 중에 포로가 된 수치스러움에 자결했다. 소식을 들은 빈객들도 자결했다. 그들을 '田橫五百士'라 하며 義氣를 높이 평가한다.

93) “計絕秦庭哭，韓亡怨未平。手終圖慶忌，義不忍田橫。寧爲國民死，不甘奴隸生。一朝雪公憤，含笑就犧牲。”

94) “健者董公衷自捫，定知身死無怨言。”

95) 顧實(1878~1956), 字 楊生, 江蘇 武進人. 古文字學·諸子學 분야의 저명 학자.

96) 『江蘇第三師範學校校友會雜誌』 1912년 1기에 수록.

공을 활용했다.

아침 해는 선홍 빛 저녁 해는 누른 빛, 한 목숨 내던져서 함께 죽기를 원했다네.  
가련타 협사의 뼈 천고에 공허하여, 창 휘두르게 한다 해도 노양공은 아니라네.<sup>97)</sup>

안중근의 의기와 희생을 기리며, 동시에 대세를 돌이킬 수 없음도 애석해했다. 魯陽公이 창으로 태양을 들어 올렸다는 이른바 ‘魯陽之戈’ 전고를 사용했다. 전국시대 楚나라 노양공이 韓나라와 한창 격전 중에 해가 저물자, 자기 창으로 해를 들어 올려 멈추게 했다고 한다.<sup>98)</sup> 신화적 인물의 과장된 성취를 빗대며, 안중근이 현실에서 대세를 바꿀 수 없었던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위의 시가들은 대체로 오사운동 무렵까지 나온 것들이다. 이후 1920년대에 작품 숫자가 적어지다가 1930년대로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중국을 옥죄어 오는 일제에 맞서 항일애국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그에 따라 ‘안중근’은 다시 유용한 제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도 중국 특유의 인물 형상화 및 전고 사용 전통이 이어졌다. 張磊<sup>99)</sup>의 「조선 열사 안중근전을 읽고(讀朝鮮烈士安重根傳)」<sup>100)</sup>라는 작품도 앞서 나온 인물 형상을 고루 사용하여 汪笑儂의 시가와 같이 다양한 묘사를 보였다. 중단 이후의 내용이다.

예양이 굳이 재를 삼키고, 신포서가 평평 눈물 흘렸듯,  
손가락 자르니 천지가 놀라고, 철퇴 밀어 장량을 비웃었네.  
일격에 천하가 놀라니, 흑룡주에서 이토를 죽였노라.  
당당함은 해와 달처럼 빛나고, 늠름함은 구미에도 널리 알려졌네.  
빼어난 공로 기쁘게 이루어져, 하비에서 노닐지 않았지.  
용맹스러운 고점리·형가·섭정이, 눈물 흘리며 초나라 죄수<sup>101)</sup>를 본받기를 바라겠는가?  
검은 포승줄로 묶고<sup>102)</sup> 그 죄를 나무라며, 강압적으로 수사했지만,  
仁을 이루고 義를 취했으니, 웃음을 머금고 단두대에 올랐다네.  
혼은 돌아가 사당은 어둡고, 혈주에 귀신은 근심한다.  
비록 몸은 죽을지언정, 어찌 흑여라도 마음을 멈추게 하랴.  
나의 동포에게 말 전하노니, 나라의 치욕과 근심을 잊지 마시길.<sup>103)</sup>

97) “朝日鮮紅暮日黃，願拌一死與偕亡。可憐俠骨空千古，縱使揮戈不魯陽。”

98) 『淮南子』·「覽冥訓」

99) 인적사항 미상.

100) 『礪大學生』 1931년 1기에 수록.

101) 楚囚는 본래 춘추시기 초나라의 助公 鍾儀를 가리킨다. 쯤나라에 포로가 되어 초수라 불렸다. 쯤侯가 음악을 연주해보라고 시키자 고국 초나라 음악을 연주하여 고국을 배신하지 않음을 나타냈다. 진후가 이를 높이 사 종의를 돌려보내 양국 간의 우호를 도모했다.

102) 縲絏은 죄인을 검은 포승으로 묶음, 즉 잡혀서 갇혀 있는 몸을 뜻한다.

103) “豫讓炭枉吞，包胥淚漫流。斷指警天地，借錐笑留侯。一擊驚天下，殲伊黑龍洲。堂堂光日月，凜凜溢美歐。奇功欣成就，不作下邳遊。烈烈高荆藟，泣豈效楚囚。縲絏非其罪，強權嚴搜求。成仁兼取義，含笑上斷頭。魂歸宇廟暗，血洒鬼神愁。縱使身可死，豈教心或休。寄語我同胞，莫忘國恥憂。”

매우 다양한 인물들에 비유하며 전형적인 형상화 양상을 보여 예로 들었다. 예양·신포서·장량·고점리·형가·섭정 등을 모두 동원하고, 동시에 안중근의 斷指와 의거·재판·순국 상황 그리고 遺志까지 적절히 안배한 치밀한 구성이 엿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역사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표상하는 바가 있다. 강건한 ‘士道’이다. 당시 중국인들이 자신들도 제국주의 열강으로부터 수모를 겪으며 국가를 구원할 수 있는 품성·정신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 전형이 수립되기를 바랐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국민성으로서 보편화되기를 염원했다. 량치차오가 『中國之武士道』 등을 통해 수립하고자 했던 ‘武士道’와도 일맥상통한다. 결국 강건한 리더십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사회 지도층의 리더십과 관련하여 안중근은 물 모델이 되었다. 량치차오는 『中國之武士道』에서 무사도·사도의 표상으로서 孔子를 비롯한 73명의 인물들을 제시했다. 그중에는 「秋風斷藤曲」과 「朝鮮哀詞五律二十四首」에서 안중근으로 비유한 형가와 선진·요리·예양·연 태자 단·장량 등도 포함된다.<sup>104)</sup> 다시 강조하자면, 안중근은 암살자 이미지의 자객이 아니라 이상적인 국민성을 고루 갖춘 국가사회 리더의 전형이었다.

## V. 결 론

안중근 제재 중국 시가들 중 일부는 인물 형상과 전고의 비유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안중근을 기렸다. 쑨원이나 위안스카이가 지은 것으로 전하는 작품들이 대표적이다.<sup>105)</sup> 진지함이 덜한 것은 아니다. 다만 대부분은 고대 중국의 수많은 인물 형상과 전고를 적극 활용했다. 중국 문학의 전형적인 표현기법이고, 이를 즐겨 쓴 것이다. 인물 형상과 전고에 익숙하고 평소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던 중국인들에게 쉽게 수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때 그 목적의식은 결국 중국을 위한 계몽과 교훈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었다.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멸망한 조선은 반면교사였지만, 안중근만큼은 국가를 위한 忠義와 희생정신의 정면 교사로서 적극 찬양했다. 안중근을 다양한 인물로 형상화하여 감동과 계몽의 효과를 배가시키고자 했다. 가장 초기에 발표된 량치차오의 「秋風斷藤曲」이 형상화의 전형을 보여준다. 다양한 인식과 감정을 시종일관 인물 형상과 전고들을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대표성을 띤다.

안중근의 형상화에 활용된 인물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한 부류는 ‘자객’·‘협사’로 규정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추후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거를 벌인 안중근의 義氣를 호방하고 담대한 인물과 고사로 형상화하여 애도·찬양했다. 가장 많이 비유한 인물은 荊軻였고, 豫讓·要離·聶政·高漸離·宜僚 등등도 적절히

104) 최형욱 「량치차오의 『中國之武士道』 저술을 통한 이상적 국민성의 기획」, 『中國語文學論集』, 115, 중국어문학연구회, 2019, 23~24쪽 참고.

105) 최형욱, 「安重根 義士를 題材로 한 중국 詩歌 연구 I: 시가 개관 및 애도·찬양 내용을 중심으로」, 앞의 논문, 194~195쪽 참고.

활용했다.

다만 자칫 부정적 형상화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일반적으로 ‘자객’이라는 말은 ‘전문적으로 사람을 몰래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 암살자’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의거 이후 중국 언론에서는 안중근을 무모한 암살행위를 한 테러리스트로 보는 경향도 있었다. 때문에 피상적으로는 암살자를 연상하여 테러리스트로 형상화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생긴다. 그러나 중국 시가에서 안중근 형상으로 비유된 자객들은 그러한 부정적이고 편협한 의미의 표상이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인물들의 특징은 무모한 ‘자객’의 이미지가 아니라 ‘의협’의 인품을 지닌 매우 긍정적인 이미지였다. 권력자의 사주와 관계없이 스스로 충의와 복수를 함께 실천한 士道의 상징, 국가사회 리더의 형상이었다. 사실 司馬遷의 「刺客列傳」 등에 보이는 자객의 개념이 그러했고, 시가에서 본래의 개념대로 적절히 활용했다고 할 수 있다.

안중근의 형상화에 활용된 인물들의 다른 한 부류는 ‘영웅’·‘지사’로 규정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오해의 소지가 없는 긍정적 형상화이다. 漢나라 건국에 공헌한 張良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先軫·楊儀·唐雎·藺相如·申包胥·董公·魯陽公·文天祥 등도 동원되었다. 특히 장량에 대해서 중국 역사의 ‘위인’으로서 그 불굴의 정신 즉 중국적인 영웅·의협의 정신이 안중근에게 이어졌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 장량은 거사에 실패했지만 안중근은 자신의 희생을 대가로 끝내 위업을 이뤘다고 찬양하고, 그 유풍이 영구히 한 국에 전해 내려갈 것임을 노래했다. 고난 속의 중국인들이 스스로를 복돋는 ‘희망’의 비유와 서사이다.

중국 시가들은 형기와 장량을 위주로 하고, 다른 다양한 인물 형상도 함께 활용하여 의협·영웅과 지사·위인으로 안중근의 긍정적 이미지를 더욱 제고시켰다. 이러한 다양한 인물 형상의 총합은 중국인들이 근대 전환기에 자신들도 제국주의의 핍박으로 고난을 겪으며 국가를 구원할 수 있는 ‘士道’ 즉 강건한 리더십의 전형으로서 수립되기를 갈망했던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내면화되어 이상적 국민성으로서 뿌리내리길 염원했던 것이기도 하다.

정리하면, ‘士’의 모범과 관련하여 안중근은 시의적절한 정면교사였다. 그는 암살자로서의 자객이 아니라 忠·義·勇·희생정신·진취성·상무정신 및 강한 의지 등 이상적인 국민성을 고루 갖춘 국가사회 리더의 전형이었다. 때문에 중국에서 의협과 위인으로 표상되었고 많은 시가로 노래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金柄珉·李存光, 『中國現代文學與韓國資料叢書』(5),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2014.
- 朴殷植, 『安重根傳』, 1912(윤병석역편 『安重根傳記全集』, 서울, 국가보훈처, 1999에 수록).
- 梁啓超, 『飲冰室合集』, 北京: 北京中華書局, 1936(影印本).
- 玉史, 『만고의사 안중근전』, 1917(윤병석역편 『安重根傳記全集』에 수록).
- 鄭滄, 『安重根傳』, 1918(윤병석역편 『安重根傳記全集』에 수록).
- 鄭沅, 『安重根』, 1917(윤병석역편 『安重根傳記全集』에 수록).
- 김광일, 「의리의 탄생: 『史記』 「刺客·豫讓」 다시 읽기」, 『中國學報』 96, 한국중국학회, 2021.
- 오만중, 「荊軻 형상에 대한 小考: 초기 문헌 기록과 후대 시가를 중심으로」, 『中國人文科學』 61, 중국인문학회, 2015.
- 이태진, 「안중근과 양계초: 근대 동아시아의 두 개의 등불」, 『진단학보』 126, 진단학회, 2016.
- 최형욱, 「梁啓超의 秋風斷藤曲 탐구」, 『동아시아문화연구』 49,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 최형욱, 「梁啓超의 朝鮮哀詞五律24首 探究」, 『한국언어문화』 49, 한국언어문화학회, 2012.
- 최형욱 「량치차오의 『中國之武士道』 저술을 통한 이상적 국민성의 기획」, 『中國語文學論集』 115, 중국어문학연구회, 2019.
- 최형욱, 「安重根 義士를 題材로 한 중국 詩歌 연구 I: 시가 개관과 안중근 애도·찬양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문화연구』 58, 중국문화연구학회, 2022.
- 최형욱, 「안중근 의사를 제재로 한 중국 시가 연구 II: 특수한 타자 및 제삼자적 인식과 감정을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論集』 137, 중국어문학연구회, 2022.
- 徐丹, 「近代中國人對安重根事件的認識」, 『民國研究』 29, 南京大學中華民國國史研究中心, 2016.
- 崔峰龍·許盈, 「近三十年來中國史學界對安重根研究綜述」, 『大連大學學報』 36: 4, 大連大學, 2005.
- 宋成有, 「中國人士所見安重根義學的視覺和反應」, 『大連近代史研究』 7, 大連市近代史研究所, 2010.
- 蘇全有, 「安重根在中國的百年記憶評析」, 『河南理工大學學報』 18: 3, 河南理工大學, 2017.

\* 이 논문은 2023년 5월 19일에 투고되어,  
2023년 9월 13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3년 10월 3일까지 심사하고,  
2023년 10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 A Study on the Image of Character Portraying Ahn Jung-geun in Chinese Poems

Choi, Hyeongwook\*

Most of the Chinese poems portraying Ahn Jung-geun were created by actively utilizing numerous Chinese great men's images of character and allusions. The characters used for Ahn Jung-geun's image can be largely classified into two types: “刺客” (assassin) and “俠士” (chivalrous man). Chinese poems mourned and praised Ahn Jung-geun, who was not afraid of death at all, by embodying heroic figures and defending Ahn Jung-geun's spirit. The most likened figure was Jing Ke (荊軻), and Yu Rang(豫讓)、Yao Li(要離)、Nie Zheng(聶政)、Gao Jian-li(高漸離)、Yi Liao(宜僚) were also appropriately used.

In general, the term “assassin” tends to be understood as “a person who specializes in secretly killing people, an assassinator.” However, the assassins compared to Ahn Jung-geun in Chinese poetry were not represented in a negative and narrow sense. These figures have a very positive image with the personality of “chivalry,” namely, the image of a national and social leader who practiced both loyalty and revenge.

The other class of image of characters used in Ahn Jung-geun's representation are those that can be considered as “英雄” (heroes) and “志士” (patriots). Zhang Liang (張良), who contributed to the founding of the Han Dynasty, was used the most. “Xian Zhen(先軫)、Yang Yi(楊儀)、Tang Ju(唐雎)、Lin Xiang-ru(藺相如)、Shen Bao-xu(申包胥)、Dong Gong(董公)、Lu Yang-gong(魯陽公)、Wen Tian-xiang(文天祥)” were also adopted. In particular, Chinese poems praised Zhang Liang as a “great man” of China, who established the shining historical record, and emphasized that his indomitable spirit continued to Ahn Jung-geun. Chinese poems also sang that their this tradition would be transmitted to Korea permanently. It is a metaphor and narrative of “hope” that encourages the Chinese in hardship.

The Chinese longed to establish the epitome of robust leadership that could save the country in times of distress. Ultimately, it was also hoped that the general public would internalize Ahn Jung-geun's positive image as chivalrous man and patriots, and further accept this image as the

---

\* Professor,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Hanyang University

root of an ideal national character. In this regard, Ahn Jung-geun was a timely role model. Therefore, he was represented as a chivalrous and great man in China and could be sung in many poems. In addition, some poems praised Ito Hirobumi for a similar purpose, portraying his heroic aspect that led to reform and prosperity.

**[Keywords]** Ahn Jung-geun, Chinese poetry, image of character, assassin, chivalrous man, great man, leadership, Ito Hirobumi

